

# 순천 탄소중립 실천 '축구장 294개 면적' 갯벌 복원한다

### 시, 2027년까지 2.1km<sup>2</sup>...해양 정원·역간척 등 탄소흡수 기반 마련 순천만 갯벌 매년 이산화탄소 6900t 흡수...승용차 2900여대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생태수도 도약을 내건 순천시가 오는 2027년까지 순천만 갯벌을 축구장(7140㎡) 294개 면적인 2.1km<sup>2</sup>를 복원할 계획을 세웠다.

순천시의 갯벌 복원 계획은 해양 생태계의 탄소 흡수를 위해 마련됐다.

바다와 갯벌, 염습지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블루카본' (Blue Carbon)이라고 한다.

지난해 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에 따르면 순천만의 갯벌을 통해 매년 약 6900t의 이산화탄소가 흡수·저장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승용차 약 2900여대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블루카본은 나무나 숲, 잔디, 화초류 등 육상 생태계가 흡수하는 '그린카본'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50배 빠르고 탄소 저장 능력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 산소의 20%를 만들어내는 아마존 열대 우림보다 바다와 해양 습지 탄소 흡수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이다.

순천만에서는 간척 사업으로 만들어진 제방이나 땅을 허물어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역간척' 사업이 추진됐다.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0.5km<sup>2</sup>의 갯벌이 복원된 상태다.

이 기간 순천만을 포함한 전국 11개 지역에서 복원된 갯벌 면적은 1.5km<sup>2</sup>이다. 지난해까지 폐염전과 폐양식장 등지에서 갯벌 복원을 추진했다.

순천시는 오는 2027년까지 약 2.1km<sup>2</sup>의 갯벌을 복원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0km<sup>2</sup>의 갯벌을 복원할 방침이다.

연안 습지 순천만은 순천만국가정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순천시는 해양정원을 조성하고, 역간척을 통해 탄소 흡수원 기반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이외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0'을 달성하자는 탄소중립 정책 실행을 위해 분야별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친환경 농축수산 인프라 조성 ▲탄소중립 생태사회 조성 등 시책을 마련했다.

지난 2021년에는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갯벌법'이 시행되면서 순천시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만정원과 오천그린광장, 그린아일랜드, 경관정원 등 약 160만평(529만㎡) 규모 정원을 통해서도 연간 1만606t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4420대의 자동차가 내뿜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효과를 낸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시는 온실가스 감축, 그린카본, 블루카본 등 탄소흡수원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전거를 타고, 걷기를 생활화해서 시민 개개인의 건강도 챙기고 지구의 건강도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순천만 갯벌을 오는 2027년까지 축구장 294개 면적인 2.1km<sup>2</sup> 복원해 '블루카본'을 흡수하는 탄소중립 해양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순천만 갯벌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순천만정원박람회도 탄소중립...미래형 모빌리티 운영

### 전기자전거·자율주행 셔틀 운행 앱 등록 후 10월까지 무료 이용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4월부터 10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인 공유 PM과 자율주행 셔틀이 순천 도심에 누빈다.

순천시는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해 '탄소중립 박람회'를 실현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인 PM(퍼스널 모빌리티)은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전기자전거 90대와 전동킥보드 10대 등 총 100대의 운송수단을 도심에 비치해 박람회 기간 차량정체를 해소하고 미래 운송체계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순천역부터 정원박람회장 구간을 중심으로 동천변 자전거도로 등 안전한 운행노선을 제공하고 거치대 10개소를 설치해 불법 주차차도 해소한다.

이용을 희망하면 누구나 애플리케이션을 이



순천만국가정원 서문 거치소의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용한 간단한 등록 절차만 거치면 편리하게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자율주행 셔틀은 2022년 전남에서 유일하게 순천시가 국토부 자율주행차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이후 사전 준비를 거쳐 박람회 기간 도심에서 첫 체험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에서 추진하는 공유 PM과 자율주행 셔틀 운영은 단순한 불거리와 즐길 거리 제공을 넘어 탄소중립 박람회 실현 및 첨단기술을 기반한 미래를 선도하는 일류도시로 발돋움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광양 서천·마동 '75m 음악분수' 만나세요

### 새단장 마치고 4월 1일 운영...10일까지 수막영상 무료 이벤트

광양시가 4월 1일부터 새롭게 단장한 서천·마동 음악분수(사천)를 본격 운영한다.

서천 음악분수는 고사분수와 화염분수를, 마동 음악분수는 최대 75m의 고사분수와 동백꽃을 연상시키는 원형분수다.

다양한 조명을 배경으로 화려한 공연을 선사하고 사랑 고백, 생일과 졸업 등에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수막영상에 음악과 함께 문구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이벤트도 무료로 진행한다.



광양시 광양을 서천 음악분수.

이벤트 신청은 광양시 관광홈페이지 문화행사 가데고리 내 음악분수에 회원가입 후 문구와 사진을 첨부해 이벤트 희망일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천·마동 음악분수는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주간에는 3회(12시 30분, 1시 30분, 2시 30분), 야간에는 2회(8시, 8시 30분) 20분씩 진행한다.

매주 월요일과 기상악화 등의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올해는 음악분수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불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천 음악분수는 컬러레이저 프로젝터와 화염 연출기를 교체하고, 수

변 무대와 관람석 데크 보수, 도색 등 시설물 보수를 했다.

마동 음악분수는 기존 음악분수에 화염 연출 장치를 추가 설치해 분수와 화염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특수효과 분수 쇼를 연출하기 위해 시설물 개보수를 진행 중이다.

배록순 광양시 시설관리과장은 "분수대 시설물 추가설치와 보수, 공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공연과 이벤트를 진행하겠다"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음악분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걸어요! 구례 300리 벚꽃길...31일 축제 개막

### 4월 2일까지 섬진강·서시천변길...버스킹·어린이 체험프로그램 등

구례군이 31일부터 3일간 '구례300리 벚꽃축제'를 개최한다.

'구례300리 벚꽃축제'는 기존 '섬진강변 벚꽃축제'를 군 단위 축제로 확대한 축제다. 구례에는 섬진강변을 비롯해 서시천변 벚꽃길 등 300리에 달하는 벚꽃길이 조성돼 있다.

이번 축제는 '벚꽃 300리 구례를 걷다'를 주제로 축제의 주무대인 서시천체육공원에서 개막식, 축하공연, 버스킹, 스탬프투어,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보조무대인 문척면 오섬권역 주차장에서는 섬진강변 노래자랑 등 방문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

트가 열린다.

문척면 월평교에서 오봉정사 사이 2.5km 구간은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명태리는 의자, 버스킹 공연 등의 이벤트를 열어 방문객들이 여유롭게 벚꽃과 섬진강변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장석우 축제추진위원장은 "금어급이 어여쁜 구례300리 벚꽃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많은 상춘객이 불편함 없이 벚꽃을 만끽할 수 있도록 교통대책과 편의시설 마련 등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상습 침수' 광양 금이지구, 배수 개선사업 선정

### 진상면 금이뜰 일원 5년간 국비 120억 투입 배수펌프장 증설 등

광양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배수 개선 사업에 '금이지구'가 선정됐다.

배수개선사업은 저지대 농경지로 태풍·집중호우 시 농작물 침수가 잦은 지역에 대한 배수 개선을 통해 재해 예방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전역 국비가 지원된다.

진상면 금이뜰 일원은 약 88ha 면적에 35ha의 애호박, 취나물 등을 경작하는 시설원예 농가와 53ha의 유기농 쌀 생산 단지로 활발한 경작이 이뤄지는 지역이다.

하지만 매년 여름철 강우에 의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배수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금이뜰의 배수 지점인 수어천은 광양만권 조위의 영향을 받는 하천으로 여름철 강우에 광양만의 만조가 겹치면 침수 피해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금이뜰에 대한 피해 이력, 주민 면담 등을 통해 수집된 근거로 전라남도에 '금이지구 배수개선사업' 신청서를 제출했고 전남도의 검토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사업 대

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금이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5년간 국비 1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배수펌프장 증설과 배수로 정비 등의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우기에 발생한 침수 피해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완 광양시 건설과장은 "지금까지 우기 때마다 다심조사하셨을 금이지구 농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 농민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곡성군

#### 지역 관련 유물 수집 접수

곡성군이 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 지역 관련 유물 수집에 나섰다.

수집 대상은 곡성 역사, 문화, 생활상을 담고 있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들로 자료의 출처가 분명해야 한다.

접수는 개관할 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기증 희망자는 먼저 곡성군 문화체육과 문화재관리팀에 기증 및 기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법은 우편(곡성군 곡성읍 군정로 50-곡성군 문화체육과) 또는 이메일, 팩스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은 곡성군 공식 홈페이지의 열린군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곡성=박중태 기자 pj@kwangju.co.kr

##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합니다'

### 보성군, 민원인 친절 응대 캠페인

보성군은 지난 27일부터 민원인 친절 응대를 위해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합니다'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운동에는 보성군 800여 공직자가 참여한다. 청사 광장이나 복도, 사무실 등에서 민원인을 보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 분위기를 밝게 바꿔보자는 취지를 담았다.

보성군은 매주 수요일 '직원 친절 다짐의 날'을 지정해 친절 실천 다짐문 낭독, 친절 구호 제창 등을 하며 친절 응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한, 연간 2차례에 걸쳐 공무원 친절도 자가 진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민원 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면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제'도 시행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친절의 기본은 어디서나 반갑게 먼저 인사하는 것"이라며 "서로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 실천이 일상 습관으로 이어져서 마주치는 분들 모두가 행복한 보성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기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